

FREGA VINCENZO 33 YEARS OLD



FERDINANDO FREGA

VINCENZO FREGA, 33세

THE FAMILY · 11

서른세 살에 디렉터로 임명된 아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한때 칼라브리아에서 찍었던 곤돌라 사진들.

*Gillette*가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른다 — 무언가를 받게 될 참인데, 아무도 그 대가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면도날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러나 나는 면도날을 팔지 않는다. 그 날은 오직 나의 어머니의 것이다. 이것이 끝날 때,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다음 것을 찾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시작하라. 당신의 시간을 가져라.

나의 마지막 아내 — 아니, 사실은 2026년 10월 9일 오늘 현재 나의 유일한 아내인 — Elisabetta가 흐느끼며 내 방에 들어와, 흐느낌 사이로 간신히 말했다.

“감동받았어.”

그러고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 어쩌면 그녀가 내 미완성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자기 성이 Frega라며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는지도.

다행히 둘 다 아니었다.

하하하.

그녀는 우리 아들 Vincenzo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서른셋이라는 앓된 나이에,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독일 유통 체인의 가장 큰 대형 할인점 가운데 하나의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말해 주었다.

그의 이름이 이미 모든 것을 알려 주었다.

그의 할아버지, 최초의 이탈리아인 GILLETTE 남자처럼.

존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사람.

나는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서, 그의 어머니가 알려 줄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말로는, 그가 전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일련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표지들을 이탈리아 영업 경영진에게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GONDOLA LAYOUT 사진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회의실에 있던 모두를 — 그리고 어떤 경쟁자들 — 저만치 뒤에 남겨 두었다.

전에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운명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유럽에서 처음이었다.

문득 나 역시 스물여덟 살에 GILLETTE ITALIA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칼라브리아 전역 350개 슈퍼마켓의 곤돌라 사진을 이탈리아 이사회에 제출했다.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나의 머천다이징 팀과 함께 만든 것이었다.

사진에는 전통적인 진열 LAYOUT과 함께, 각 매장 주인과 직접 협상한 두 번째 상품 배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주인들에게 그들의 슈퍼마켓이 밀라노에서 시작해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보이게 될 거라고 말하곤 했다.

칼라브리아 남자는 결코 여자에게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순한 살인 오늘도, 나는 그것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사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보이게 될지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했다.

아무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파는 일.

하나의 희망.

그러나 **결코 약속은 아니다.**

나는 Vincenzo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나와 그의 손자를 지켜보고 계시며,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확신했다.

“자, 애들아. 일 끝났다.”

아주 희미한 미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 얘기를 하자. 누아르는 주말로 미뤄 뒀다 — 하지만 언제나 가족 다음이다.”

Ferdinando